

## 잘못된 피임상식

### — 생리 중 성관계는 가장 안전한 자연 피임법이다?

생리란 증식된 여성 자궁 내막이 임신이 되지 않아 탈락하는 현상이다. 이 기간 중 성관계를 하면 임신 확률이 적긴 하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다. 특히 생리 주기가 짧고 생리 기간이 긴 사람이 생리가 끝날 무렵 성관계를 가지면 3일 이상 살아 있는 정자와 배란된 난자가 수정돼 임신될 수 있다.

### — 관계 후 바로 질 세척을 하면 임신이 안된다?

일단 성관계를 가진 후 질 속을 깨끗이 세척하면 임신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오해다. 이미 많은 정자가 자궁 입구를 통과한 상태라면 수 억 마리의 정자 중 아무리 씻어도 남아있는 수 역시 상당수다.

### — 질외 사정으로 임신을 피한다?

성관계 도중 질 밖에서 사정을 하면 임신이 안 될 것이라는 믿음은 가장 널리 유포된 오해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질 밖으로 사정하면 임신의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사정하기 이전에 이미 정자가 일부 정액에 섞여 분비되기 때문에 임신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성관계 시 남자가 흥분 상태가 되면 조절능력이 감소해 질외 사정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 —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면 살이 찌고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20대 미혼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과거 피임약은 호르몬량이 많아 체내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살이 찌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피임약은 호르몬이 극소량이다. 따라서 체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

〈출처 : 연합뉴스〉